

불완전한 사람도 하나님에겐 특별하다

짐 그레함 목사 / 한 홍 목사 통역 / 2002. 5. 26

요한복음 1장은 우주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끝 부분에서 교회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까지 교회는 탄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중 빌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은 빌립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몇몇 기록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합니다. 그 때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였고, 빌립은 아무 주저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타인들의 시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 등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지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즉시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믿습니다.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인간이 아닌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주 창조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형태로 태어나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신기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신적 본질이 육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이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로 그분을 부활시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셨던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을 갖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셨던 공간은 성령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살아 계십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과 같은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데려가실 것입니다.

빌립은 열린 마음을 가졌지만 생각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5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설교를 들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 빌립은 사람이 많고 음식이 없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자의 8개월치 월급이 있어야 무리를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왜 불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 손에 있으면 작은 것도 커진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22절 말씀에 빌립은 매우 연약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들은 헬라 배경을 갖고 있는 빌립이 자신들을 예수님에게 잘 소개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동생 안드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빌립은 무엇인가 결정하거나 책임있는 일을 할 때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성장 배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 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가르쳤고, 삶을 나누었지만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되었습니다. 빌립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제한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열린 마음, 비관적인 사고, 약한 마음 그리고 제한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도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교회사의 전설에 의하면 빌립은 아시아 지역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교회사 학자 유세비우스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아시아에서 사역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아들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유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땅 끝까지 가도록 하시고 그분을 섬기게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빌립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는 작은 것도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가슴 속에 약동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위한 위대한 군대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